

2018.10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8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8.10.30	대전MBC 대회의실	6/11	7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성철, 함진호, 이용원, 김종남, 양홍모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사업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1	6	-	-	17	-	17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4	3	-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9,10월
보도	교통사고 가해자 특정 성별(여성)을 강조하는 보도 유의하길	“대전 교통사고 증가(10/8)” 특정 성별 언급 없이 기사처리	10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대학 구조조정 이후 “취업 관련문제”를 토론했으면	시사토론M(10/28) 프로그램에서 청년 취업 문제 주제로 토론	10월
보도	뉴스소비의 다양화를 위해 SNS 등 적극적 활용을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청지역 방송사 가운데 가장 폭넓은 뉴스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연중
교양	라디오의 “금강보호캠페인” 현실과 동떨어진 “당나라 소정방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수정을	금강수질이 좋아지면서 “흰수마자”라는 토종 민물고기가 다시 금강에 등장하여 이 주제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음.	10월
보도	뉴스제작의 다양화로서 카드뉴스, 60초 뉴스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요 이슈를 1분 안에 해설하는 60초 뉴스 “대전을 놀라게 한 퓨마사건 브리핑(9/18)” 등 60초 뉴스 현재 운용	9,10월
교양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지역시민들 적극 참여 유도를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요일별 시민단체(10/26 대전충남 녹색연합, 10/24 광복회 대전지부, 10/17 노동연구원 등)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지역민 출연	10월
교양	지역 유산을 발굴, 보존할 수 있도록 취재 방송해주길	시사플러스(10/22) “근대문화유산(대전형무소 등 부각)” 의미 짚어봐	10월
교양	시사프로그램에서 비판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사플러스 “시장으로 간 청년들 생존의 조건(10/29), 태양광사업의 명암(10/15) 등에서 대안을 함께 제시	10월
보도	한화이글스 심층적 보도를	“홍관중, 70만명 돌파(10/2)”, “극적인 반전 노린다(10/21)” 등 심층적 보도	10월
교양	라디오 프로그램의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들과 보다 더 가깝게	“FM모닝쇼, 오후의 희망곡, 오후의 발견” 등 AM, FM 프로그램에서 계속 보이는 라디오 진행, 외연 확대	10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8. 5. 01.~2019.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단체	18.05.01~ 19.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위원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8.05.01~ 19.04.30
위원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8.05.01~ 19.04.30
위원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인	(사)문화유산올림	문화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김경희, 권부남, 정대식, 이용원, 김종남, 양흥모, 양선희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0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대전MBC는 창사 54주년을 맞아 기획뉴스 '도서관은 살아있다'를 매주 월~수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하고 있다. 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새로운 혁신공간의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기획한 이 뉴스는 참신하다. 도서관 특색, 의미, 통계로 본 뉴스 등 코너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이야기거리는 대전MBC 뉴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다. 의미 있는 기획 뉴스라고 본다(양선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지식 전파의 중심이자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도서관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접근하는 뉴스로 기획되었다.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기획 뉴스를 새롭게 선보이려 하고 있다			
보도	10월 1일 뉴스데스크 “지역의료격차 민낯 드러나” 리포트 기사를 보면 “치료가능사망률 “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도·농간, 대전시 유성구와 원도심인 중구 등 데이터를 통한 의료현실을 비교분석을 통해 알기 쉽게 잘 전달 해 주었다. 지역의료격차를 데이터를 통해 전달해주니 단순문제제기 차원을 넘어선 과학적 저널리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였다. 바람직한 뉴스 제작이었다(양선희).	의료와 건강정보를 비롯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정보를 뉴스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		
보도	학교수업을 컨테이너에서 하는 초등학교 교육행정을 꼬집는 기사(10월5일)를 살펴보니 해당 초등학교는 익명처리를 하였다. 담당 관계자 또한 익명처리를 하였으나 이름을 밝히지는 않더라도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밝혔더라면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듯싶다(양선희).	해당 보도는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고통받는 실태를 고발한 보도로, 지적하신 사안은 보도 즉시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	○		
보도	“대전 보문산 배회 원숭이 포획 시도 중“(10월 5일)기사는 원숭이를 생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뉴스 말미에 9월에 사살된 퓨마를 근접해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자극적인 영상은 피했으면 좋겠다(양선희).	뉴스 영상 취재 및 편집 담당 부서인 편성국 영상부와 긴밀히 협의해 뉴스 영상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		

교양	<p>시사플러스에서(10/1)에서 &lt;세상을 보는 시선-농촌의 작은 영화관들&gt;이라는 제목으로 서천 기벌포 영화관을 비롯해, 태안/예산/청양 시네마, 9월 개관한 금산시네마! 충남 지역의 작은 영화관들을 소개하였다. 대전MBC가 뉴스 등 충남지역을 소재로 등장할 때, 자연재해나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인데 모처럼 따뜻한 감동 있는 내용이 소개되어 보기 좋았다. 아쉬운 점은 국제시장 영상에 오달수 영화배우가 등장한 점이다. 미투운동 관련자이기 때문에 자료화면을 송출하기 전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기를 바란다(양선희).</p>	<p>지적을 경허히 받아들인다. 물론, 해당 배우의 경우 의혹만 제기된 상태이고 관련 사실이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게 편집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차후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p>			
보도	<p>“대기업 자본 축산농가 잠식”(10/28) 기사에서 홍성지역의 돼지 사육이 파악된 것만 7곳, 어미 돼지와 고기를 얻기 위한 비육돈 등 3만3천여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를 하였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정작 이익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생산자가 중심이 된 협동조합형 조직 등 농가를 보호하면서 축산업도 발전시킬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은 시의적절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도한 점은 지역방송의 가치를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뉴스였다(김경희).</p>	<p>충남은 축산농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축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 충돌과 제도 개선의 요구가 많은 곳이다. 바람직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산업의 현안과 당면 과제를 짚어보는 뉴스를 제작하도록 하겠다.</p>	○		
보도	<p>보도국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토론M” 출연진 구성을 보면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남성 위주로 패널이 구성되어 있다. 해당 분야에 여성전문가도 있을 텐데 앞으로 여성도 패널로 같이 참여하게 하여 토론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길 바란다(김경희)</p>	<p>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성 패널의 활용도도 적극 높이겠다</p>	○		
교양	<p>앞으로 지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면, “로컬푸드·마을·공동체복원·주민주도의 삶” 등을 키워드로 꼽아볼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공동체 삶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된다. 앞으로 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볼 때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김경희)</p>	<p>공동체 회복과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지역방송의 당연한 소임이라 생각한다. 관련해서 현재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특별기획을 통해 공동체와 마을의 발전 사례를 취재, 방송하고 있다.</p>	○		
보도	<p>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지역축제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낙후된 지역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p>	<p>주제의식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어가도록 주지하겠다.</p>	○		

	지역을 마케팅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 수억 원의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에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역 축제, 이대로 좋은가? 집중 점검해 본다” 프로그램 기획의도가 이러한데 실제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은 지역축제를 계속 해야한다는 것인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와 닿지 않았다(권부남).			
보도	대전·충남 지역의 스쿨미투가 최근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후속보도를 기대한다(권부남).	관련 보도 이후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인사, 징계 조치 결과가 나오면 보도하겠다.		
교양	“TV특강” 구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출연 강사의 주제에 대한 강연이 주를 이루고 방청석과 일문일답 같은 질문과 답변이 없다. 질문도 있고 토론도 있는 소통방식의 형태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송길현).	자체 제작이 아니라 타사의 제작물을 송출하는 형식이라 직접적인 내용 관리가 쉽지는 않다. 차후 계기를 통해 관련한 의견을 개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교양	시사플러스(10/22) “근대문화유산, 어두운 역사를 비추다” 편에서 대전의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옥고를 치르며 조국의 해방을 염원한 곳인 대전형무소 등을 조명하였다. 자료화면은 많지 않았지만 전문가, 관계자, 시민단체 등 적절하게 등장시켜 프로그램 전체를 잘 이끌어갔다. 대구, 군산 지역에 비교해 보아도 우리 지역 근대문화유산이 적지 않게 현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보존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져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후속취재를 통해 보강된 근대문화유산편을 방송하였으면 한다(송길현)	평가에 감사드린다.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단편적인 뉴스 보도가 담지 못하는 다양한 이면과 사례들을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에도 관련한 아이টে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계기에 맞춰 취재,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보도	네이버를 접속하여 대전MBC 뉴스를 클릭하였더니 뉴스데스크를 비롯하여 대전MBC뉴스 다시보기가 원활하게 구동되고 있었다. 반가웠다. 보도날짜를 첫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면 더욱 좋겠다(정대식).	대전MBC 뉴스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청지역 방송사 가운데 가장 폭넓은 뉴스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보도	기획뉴스 '도서관은 살아있다'를 즐겨 시청하고 있다. 괜찮은 기획뉴스이다. 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새로운 혁신공간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도서관의 정체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공간의로서의 가능성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들까지 심도 있게 모색해 가겠다.	○	

	<p>새로운 문화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도서관이 또한 인성교육과도 연계가 되므로 인문학 프로그램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후속적으로 취재하여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대전MBC가 향후 새로운 발전모델로 가져갔으면 좋겠다(정대식).</p>			
<p><b>교양</b></p>	<p>한빛대상 시상식(10/8)을 시청하였다. 연말도 아닌데 황금시간대에 시상식을 방송해서 좀 놀랐다. 수상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 같은데 왜 저 분들이 수상자가 된건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초반에 70명을 추천 받아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기까지 개략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긴 했지만, 수상자들이 다른 후보자들보다 어떤 점이 나아서 수상하게 된건지 궁금했다. 마지막 성심당 대표 외에는 다들 평범한 이웃인데, 사회적 기여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아 수상에 대해 좀 의아했고, 굳이 1시간 동안 방송까지 할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김은주).</p>	<p>길지 않은 시간에 많은 수상자들의 이력과 공적을 다루다보니 조금은 내용이 부족했던 듯 하다. 지적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향후 제작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p>		
<p><b>교양</b></p>	<p>시사플러스(10/1) “문화재한수정책 제자리를 찾고 있는가?”편을 시청하였다. 대전 지역 법조인으로서 관심 있었던 서산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관련 사건을 다뤄줘서 흥미롭게 보았다. 주제선정도 신선했고, 인터뷰이 선정도 잘한 것 같다. 시사플러스는 매주 잘 보고 있다. 늘 내용도 탄탄하고 배울 정도 많은 좋은 프로이다(김은주).</p>	<p>평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시사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p>	○	
<p><b>보도</b></p>	<p>“ 대전 사립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참여저조(10/29)“ 뉴스데스크 기사를 보면 보도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대전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참여율이 “3%대”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와 닿지 않는다. 위 보도내용은, 타 지역 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입학생을 받는데, 대전 지역 유치원은 그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발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유치원들이 그 시스템에 참여하는 게 바람</p>	<p>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치원생을 자녀로 둔 분들을 중심으로 지역 시청자들의 관심과 반응도 뜨겁다. 교육 관련 보도를 하면서 다소 전문적인 분야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 구성부터 편집까지 신경쓰도록 하겠다.</p>	○	

	<p>직한지, 꼭 그 시스템이 좋은지도 궁금하다. 일반적인 시청자들이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데, 단순 수치만 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 인양 보도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한다(김은주).</p>				
--	--	--	--	--	--